

세상이 뒤집어졌을때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Week 19: 사도행전 Acts 16:6-34

“내가 기독교인 인 이유” “Why I am a Christian”

사도행전 Acts 16:6-8

6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므로 그들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7무시아에 이른 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8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And they went through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forbidden by the Holy Spirit to speak the word in Asia. 7 And when they had come up to Mysia, they attempted to go into Bithynia, but the Spirit of Jesus did not allow them. 8 So, passing by Mysia, they went down to Troas.

사도행전 Acts 16:9

9그 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And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a man of Macedonia was standing there, urging him and saying,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사도행전 Acts 16:10-12

10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판단하고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11그 길로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다음날 네아폴리를 거쳐
12빌립보로 갔다. 그 곳은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And when Paul had seen the vision, immediately we sought to go on into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11 So, setting sail from Troas, we made a direct voyage to Samothrace, and the following day to Neapolis, 12 and from there to Philippi, which is a leading city of the district of Macedonia and a Roman colony. We remained in this city some days.

사도행전 Acts 16:13-14

13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14그 자리에는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도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And on the Sabbath day we went outside the gate to the riverside, where we supposed there was a place of prayer, and we sat down and spoke to the women who had come together. 14 One who heard us was a woman named Lydia, from the city of Thyatira, a seller of purple goods, who was a worshiper of God.

사도행전 Acts 16:14-15

14그 자리에는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도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15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pay attention to what was said by Paul. 15 And after she was baptized, and her

household as well, she urged us, saying, “If you have judged me to be faithful to the Lord, come to my house and stay.” And she prevailed upon us.

사도행전Acts 16:16-17

16어느 날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 그녀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서 주고 있었다.

17이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고 외쳤다.

As we were going to the place of prayer, we were met by a slave girl who had a spirit of divination and brought her owners much gain by fortune-telling. 17 She followed Paul and us, crying out,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o proclaim to you the way of salvation.”

사도행전Acts:16:18

18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외치며 성가시게 따라다니므로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

And this she kept doing for many days. Paul, having become greatly annoyed, turned and said to the spirit,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come out of her.” And it came out that very hour.

사도행전Acts 16:22-23

22군중들까지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 비난하자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하였다.

23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둔 후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The crowd joined in attacking them, and the magistrates tore the garments off them and gave orders to beat them with rods. 23 And when they had inflicted many blows upon them, they threw them into prison, ordering the jailer to keep them safely. 24 Having received this order, he put them into the inner prison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사도행전Acts 16:25-27

25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26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 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

27졸던 간수가 깨어나 감방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26 and suddenly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so that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were shaken. And immediately all the doors were opened, and everyone’s bonds were unfastened. 27 When the jailer woke and saw that the prison doors were open, he drew his sword and was about to kill himself, supposing that the prisoners had escaped.

사도행전Acts 16:28

28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놓으시오” 하고 외쳤다.

But Paul cried with a loud voice, “Do not harm yourself, for we are all here.”

사도행전Acts 16:29-30

29간수는 등불을 구해 가지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30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And the jailer called for lights and rushed in, and trembling with fear he fell down before Paul and Silas. 30 Then he brought them out and sai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